

‘줄라이 패키지’ 협상 시한 임박 李 정부, 對美외교 시험대 올라

6개월만에 한미 정상외교 가동
방위비·대중 전력 등 이슈 전망
일각선 한미 FTA 재협상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하던 25%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달부터 대미 관세외교의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가 두 배로 오르면서 가격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미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상황이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기존 25% 관세 하에서도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가 50%로 오르면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이 크게 상승해 경

쟁력을 완전히 잃을 우려가 크다.

관세 추가 인상과 맞물려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7월 일괄 타결) 협상의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점도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고난도 통상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4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협상 중인 모든 국가에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협상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광범위한 통상 현안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한미 FTA 개정을 통해 미국의 대한민국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압박이 예상된다.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후 13년간 양국 교역량 확대

에 기여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한민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협정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통상 압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6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상간 협상 가능성도 주목된다.

당장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51차 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관례상 이르면 대통령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세나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문제, 대중국 견제 전략 등 다양한 이슈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전례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르면 7월 중 미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폭염과 한파 속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특정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은 36만 7000원 수준이다. 1인 세대는 연간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등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시골언니 프로젝트’ 운영

도시 청년 여성, 농촌지역 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른바 ‘시골언니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6개소의 현장운영기관을 선정해 100여 명의 청년 여성이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올해 현장운영기관으로는 상주, 거창, 강화, 청도, 원주, 김제 지역의 6개소가 선정됐다. 이달 19일 경북 상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

정이다. 청년이그린 협동조합(경북 상주), 코결로우 주식회사(경남 거창), 협동조합 청풍(인천 강화), 협동조합 온누리(경북 청도), (주)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강원 원주), (사)지역활력센터(전북 김제)이다.

그간의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도시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농촌에서의 창업이라든지 이주·정착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농촌에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참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취·창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농촌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고, 성공적인 농촌 취입·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제정원박람회’ 흥행… 지역상권 매출 ↑

서울시 개막 2주만에 100만명 발길
동작구 등 인근지역 카드 결제 증가

지난달 22일 개막 후 2주째를 맞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주변 상권으로 관람객의 소비활동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전후 각 1주일간(5월 14일~5월 28일) 행사가 열리고 있는 보라매공원 인근 동작구, 관악구 주요 상권의 신용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결제금액과 결제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중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도 대폭 늘었다.

박람회 개최 전후 1주일간 대상 지역의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은 하루 6억 7600만원으로 전주 평균 5억 6700만원 대비 약 20% 증가했다. 이용금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막을 올리지 열흘 만인 31일까지 111만명이 다녀갔다. 개막 첫 주말인 24일~25일에만 30만명 이상이 찾았고 6월 1일까지 누적관람객은 124만 7286명에 이른다. 박람회는 10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시

액이 가장 많았던 날은 5월 24일 약 7억 5000만원으로 전주 토요일(17일) 6억 9000만원보다 6000만원 가량 높았다.

신용카드 결제 건수도 늘었다. 박람회 시작 후 하루 평균 3만 2286건의 결제가 이뤄졌는데 이는 전주 하루 평균 2만 7635건 대비 약 17% 증가한 수치

다. 결제 건수가 가장 많았던 날은 5월 25일 3만 4379건으로 전주 일요일 2만 5392건 대비 35%가량 늘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긍정적 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중소·중견기업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 긍정적 영향”

코트라 해외전시회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기업 90% 효과적 지원수단 평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부 지원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 기업의 90.7%가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규바이어 발굴에 성공했다고 답해, 전시회 참가가 해외시장 개척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 605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월~5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한 해외전시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3%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수출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 수단으로 평가했다.

이는 상담 및 컨설팅(수출상담회 등) 4.6%, 지사화사업 2.8%를 크게 앞서는 수치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의 압도적 효과를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0.7%는 해외전시회 참가가 “신규바이어 발굴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28.4%는 “기존 거래처 관리 및 관계 강화”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조사로 중소·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수출 지원사업 중 해외전시회가 가장 높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기록관리 평가 ‘최우수’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한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록의 날’에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기관 유형별 격년제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99.45점을 획득했다. 전체 평균은 84.1점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93개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중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



아 기록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록관리 업무 기반 및 업무 추진 분야 등 평가 지표 전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지난 평가(2022년) 대비 수준이 상향(나등급→가등급)돼 우수한 기록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은 “이번 평가 결과가 기록물의 중요성과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록관리 업무 추진과 서울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올바른 기록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